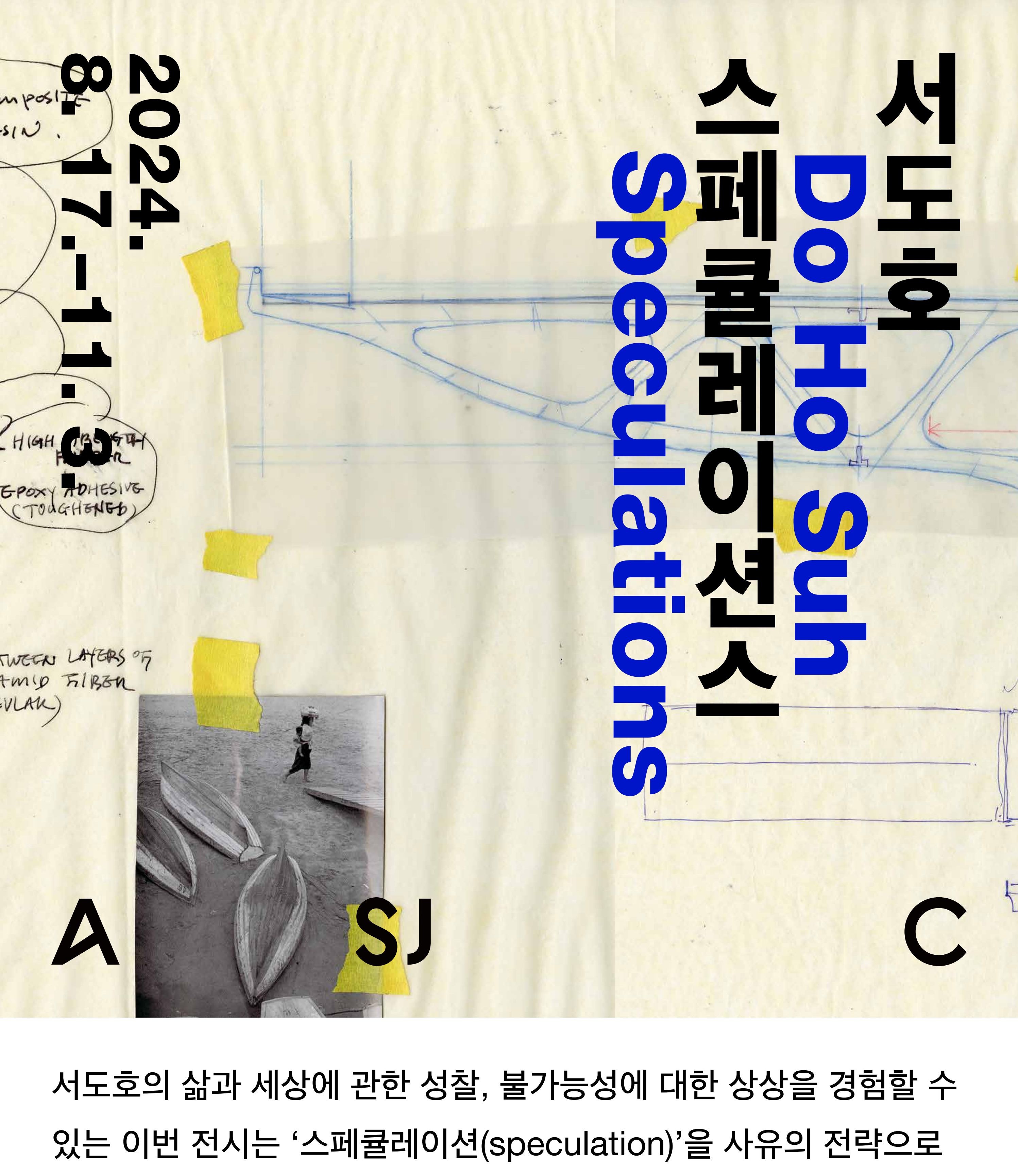




서도호의 삶과 세상에 관한 성찰, 불가능성에 대한 상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스페큘레이션(speculation)’을 사유의 전략으로 삼아 작가가 끊임없이 탐구해 온 시간, 공간, 기억, 움직임의 주제를 재구성하며 대안 세계에서 가능한 것들을 탐구합니다. 사변, 추론, 사색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스페큘레이션’은 개인과 공동체,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서도호의 숙고와 가설, 상상력의 작동 방식을 함축합니다. 서도호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스페큘레이션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정서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삶의 복합적인 특성에 접근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동안 서도호는 자신이 실제 거주했던 집이나 작업실 공간을 천으로 구현해 장소 특장적 미술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단한 물질을 재료로 삼아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는 조각들과 달리 빛이 투과되는 성질의 천으로 만든 서도호의 집은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관객들에게 서도호의 공간을 경험하게 한 것이라면, 《서도호: 스페큘레이션스》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도호의 사유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로서 작품을 보여주는 통상적인 미술 전시와 달리 이번 전시는 작가의 예술적 실천 그 저변을 이루는 개념, 과정,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도호가 가진 사유의 흐름을 드로잉, 축소된 모형,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시각화해 펼쳐 보입니다.

1층 더그라운드에서는 서도호의 다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완벽한 집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을까?” 서도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이 집이라고 느끼는 두 도시, 뉴욕과 서울을 태평양 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자신의 완벽한 집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첫 번째 다리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2010-2012)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대륙 사이의 이동에 대한 사변적 사유와 드로잉을 기반으로, 건축가, 생물학자, 물리학자, 이론가, 산업디자이너 등 여러 협력자들이 함께 모여 태평양의 조류와 바람을 버틸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하는 서도호의 두 번째 다리 프로젝트는 작가의 현재 거주지인 런던을 추가해 서울, 뉴욕, 런던 세 도시를 등거리로 연결한 지점에 ‘완벽한 집’을 설계합니다. 서도호는 북극 보퍼트해 인근 축지(Chukchi) 고원(좌표: 77°55’33”N 161°23’49”W)에 위치하게 되는 이 집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 실험을 통해 작가는 다른 공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의 의미를 질문하고, 기후 환경, 고립, 장벽, 다시 세워지는 국경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잠재적인 대안을 실험합니다.

스페이스1에 소개되는 서도호의 작업들은 공통적으로 물리적 혹은 개념적으로 장애물이 있거나 실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사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실현된 결과물로서 작품이 아니라 가설이나 다이어그램, 애니메이션, 모형, 글의 형태로 존재하며, 미완의 상태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작업 전반에는 서도호의 ‘완벽한 집’에 대한 개념적 탐구, 공공미술에 관한 생각과 태도, 공간 사이를 연결하고 움직이게 하는 통로 공간에 대한 오랜 관심이 유기적으로 섞이며 작품 간의 관계망을 만듭니다. 바다와 하늘을 가로질러 서울의 한옥을 런던으로 옮기거나, 작가의 기억이 담긴 장소를 트럭에 싣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도전에서부터, 기념비를 둘러싼 관습과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전복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20년에 걸친 서도호의 폭 넓은 시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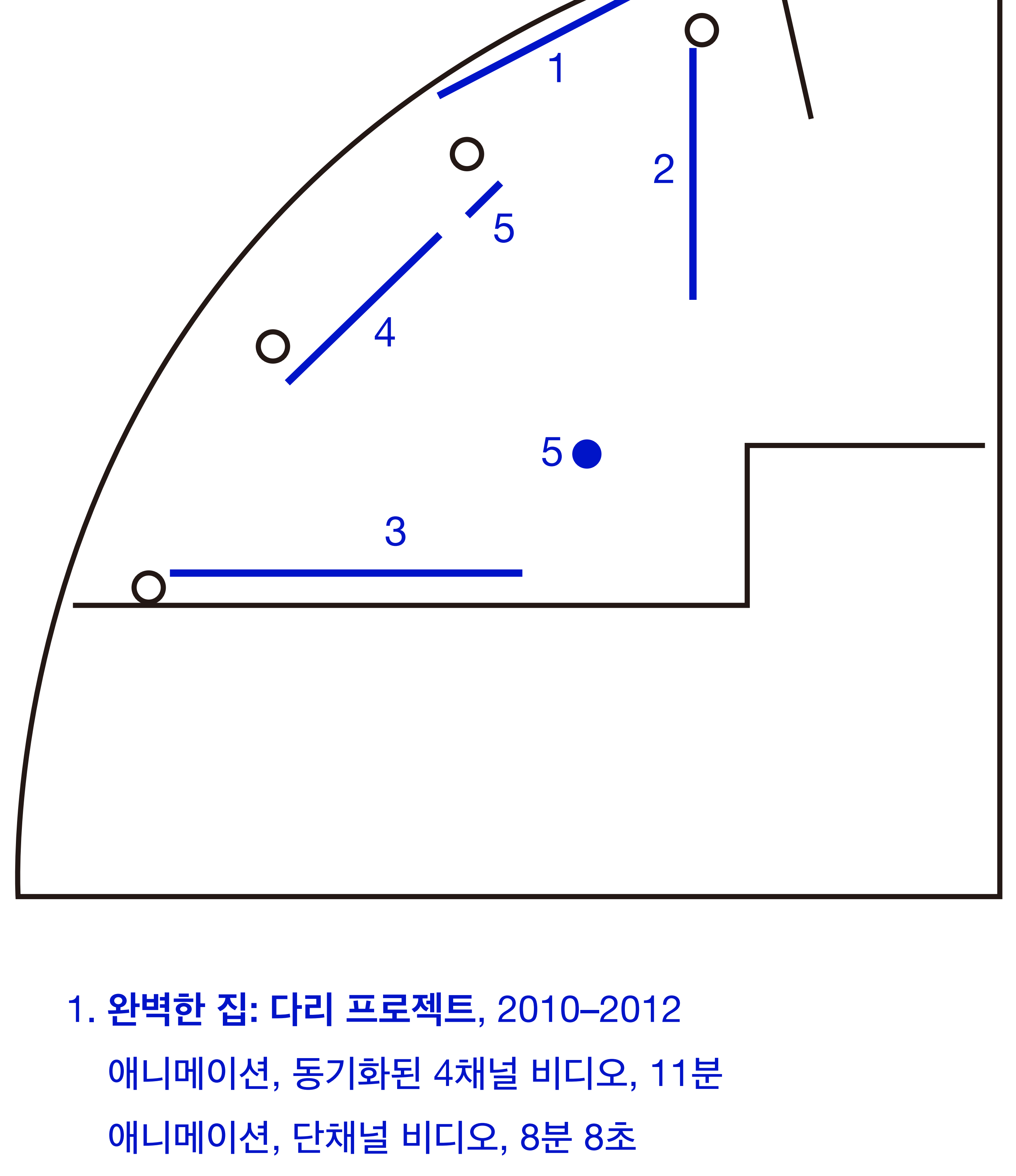
스페이스2에서는 서도호의 <동인아파트>(2022)와 <로빈 후드 가든, 울모어 스트리트, 런던 E14 0HG>(2018)를 순차 상영합니다. 이 두 영상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공동 주택 단지를 카메라로 느리게 기록하고 재현함으로써 시간과 기억, 공간과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공동 주택 시설에 켜켜이 쌓인 기억의 현재를 탐구하는 서도호의 사변적 시도는 공동체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성찰을 경험하게 합니다.

《서도호: 스페큘레이션스》는 우화적 스토리텔링으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서도호의 작업을 통해 동시대적 삶의 복합적 층위에 대한 시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과 환경의 변화하는 관계 속에 제기되는 위기와 도전을 사변적 사유로 대응하며,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복합성에 접근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도호가 펼치는 사유의 여정을 따라 물리적 현실과 개념적 상상의 경계를 오가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교차하는 문화와 초국가적 삶의 조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시공간을 유추하며 지구에 도래할 대안적 세계를 함께 구상해 보길 제안합니다.

전시 지도 및 작품 설명

더그라운드

1층



1.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 2010-2012

애니메이션, 동기화된 4채널 비디오, 11분

애니메이션, 단채널 비디오, 8분 8초

2. 다리 프로젝트(180개의 드로잉), 2010-2024

혼합 재료, 각 29.7×42 cm

집은 서도호가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주제이자 작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벽한 집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을까?” 서도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이 집이라고 느끼는 두 도시, 뉴욕과 서울을 잇는 다리 위에 자신의 ‘완벽한 집’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2010-2012)는 ‘완벽한 집’ 위치하는 태평양의 조류와 풍력, 자연환경의 변화를 견딜 수 있는 건축 설계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도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건축가, 생물학자, 물리학자, 이론가, 산업디자이너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을 설계합니다. 서도호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다리를 매개로, 움직이는 국경과 변하는 기후 환경,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가족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이 프로젝트에서 다룹니다. 서도호에게 집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듯, 다리 프로젝트는 협업의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3. 다리 프로젝트, 2024

애니메이션,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약 24분

4. 다리 프로젝트(구명복 프로토타입), 2024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서도호는 기존 <다리 프로젝트>에 자신의 현재 거주지인 런던을 추가해 서울, 뉴욕, 런던 세 도시를 등거리로 연결한 지점에 ‘완벽한 집’을 설계합니다. 이 완벽한 집은 북극 보퍼트해 인근 축지(Chukchi) 고원(좌표: 77°55’33”N 161°23’49”W)에 위치합니다. 다리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다른 장소로 이주하며 마주하는 소속감과 경계의 문제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국경의 문턱으로부터 비롯된 의문들에 반응한 결과로, 임의로 구획된 공간 그 너머로 향하는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5. 완벽한 집 S.O.S.(Smallest Occupiable Shelter,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대피소), 2024

프로토타입 I,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200.2×182.6×76.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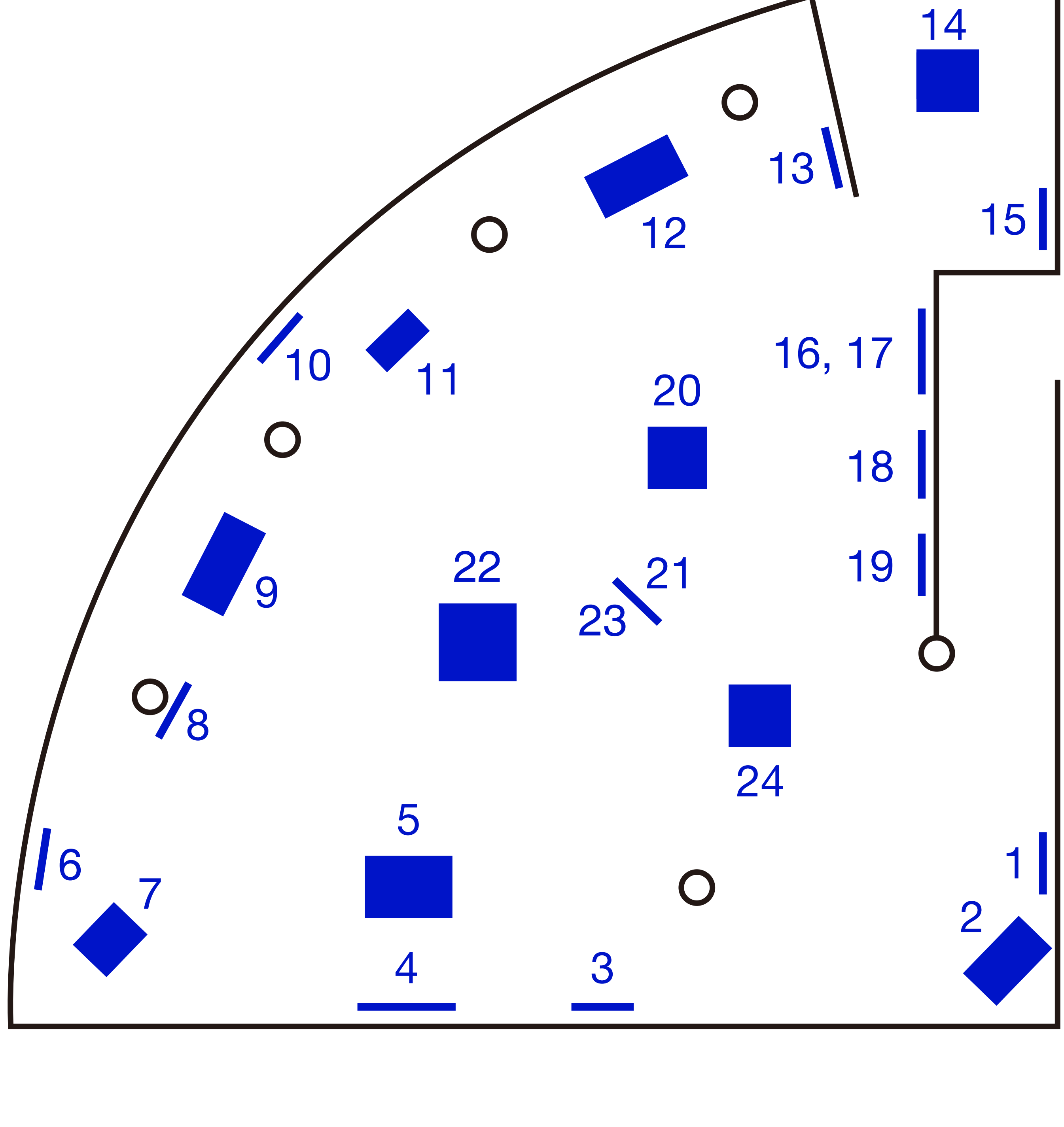
프로토타입 II, 폴리아미드, 196.6×184.8×33.7 cm

이동성을 고려해 천으로 제작된 <완벽한 집 S.O.S.>는 일주일간 북극해의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명복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대피소’로서 옷의 개념을 제안하며,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패널과 조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구명복은 1988년부터 극지연구소에 의복을 지원해 온 코오롱스포츠가 대자연 속에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연구 개발한 라이프테크(LIFETECH)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위해, 코오롱스포츠와 서도호는 집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옷의 기능과 기술을 연구해 극한의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진행 중인 연구 과정의 일부로, 완성된 결과물은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 지도 및 작품 설명

스페이스1

2층



1. 다리를 놓는 집, 리버풀, 2010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분 30초

2. 다리를 놓는 집: 모형 1(1/16 스케일), 2015

코리안, 207×119×191 cm

<다리를 놓는 집 리버풀>은 서도호가 경험한 이주로부터 발생하는 반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영국의 산업 도시 리버풀의 두 건물 사이, 어린 시절 집을 축소한 모형을 끼워 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문화 충돌’이라는 단순화된 개념을 미묘하게 재구성하는 한편, 대도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부족에 대한 변주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충돌한 세 건물이 기묘하게 연결된 모습을 실제 건축 모형처럼 3D 모형으로 정교하게 만든 버전을 선보입니다. 건물의 본래 색이 제거되고 백색으로 존재하는 이 모형 작품은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새로운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나의 집들, 2024

애니메이션, 2분 53초

4. 나의 집/들, 양(1/30 스케일), 2024

폴리락타이드, 알루미늄, 166×224.9×17.1 cm

5. 나의 집/들, 음(1/35 스케일), 2024

폴리락타이드, 16.1×194.9×142.7 cm

<나의 집/들, 양>과 <나의 집/들, 음>에서 서도호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주거지와 스튜디오를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하나의 건축 모형 설치물로 통합합니다. 한국, 미국, 독일, 영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소의 건물들을 한데 모으고, 서로를 잇는 연결 공간과 출입구를 건축학적으로 정확하게 교차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나의 집/들, 양>은 기능하지 않는 빌딩 블록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작품 속 모형들은 서도호의 삶과 이동을 그리는 초상화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건축의 기본 구조인 문, 창문, 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형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양식을 결합함으로써 식별할 수 없는 도시, 혹은 꿈의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집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를 통해 활성화되는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과 공명합니다. 한편 <나의 집/들, 음>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나의 집/들, 양>과 달리 마치 건물에서 숨이 모조리 빠져나가 생명력을 잃은 장소들이 다시금 굳어져 버린 것 같은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6. 사천왕사를 위한 제안, 2021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4분 9초

7. 사천왕사를 위한 제안(1/100 스케일), 2024

혼합 재료, 10.3×80×100 cm

<사천왕사를 위한 제안>은 한국의 고고학적 유적지에 관계 맺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사천왕사는 7세기 말, 당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킬 불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경주에 급히 세워졌습니다. 한국 밀교의 가장 초기 유적으로 알려진 이 구조물은 화려한 색채의 비단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프로젝트는 2021년 런던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는데, 서도호는 고대 로마의 신전인 미트라스 유적지 위에 대규모의 프로토타입을 건설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이 분해되어 드러난 건물의 골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억과 주관적인 역사의 해석에 관한 작가의 탐구이자 표현 방식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엄격한 역사적 고증, 건축적 연구, 예술적 감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신전을 실제 유적지에 수행적인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을 염원합니다.

8. 비밀의 정원, 2012

애니메이션, 단채널 비디오, 4분 25초

9. 비밀의 정원, 2012

혼합 재료, LED 조명이 부착된 디스플레이스 케이스,

199×180×82 cm

서도호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정원이 16분의 1 크기의 모형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18륜 트럭의 화물칸에 실립니다. 이 트럭은 미국의 건물과 기념비만큼이나 미국적인 풍경을 상징하며 서도호의 한옥집과 대조를 이룹니다. 운전석 내부 역시 전형적인 미국 차량의 모습을 재현해 꾸며져 있습니다. 모형과 함께 선보이는 애니메이션은 비밀의 정원이 실린 트럭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 뉴욕에 위치한 매디슨 스퀘어 공원에 비스듬히 주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습니다. 영상은 정원에 식재된 한국 자생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시들거나 반대로 번성하기도 하는 대안적 결말을 제시합니다.

10. 틈새 호텔, 2012-2015

애니메이션,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2분 42초

11. 틈새 호텔: 모형 1(1/6 스케일), 2015

혼합 재료, 112×59×152 cm

<틈새 호텔>은 일시성, 랜드마크, 장소적 특수성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이 이동식 호텔은 도로, 주차장, 골목길에 조용히 나타나 도시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들 틈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근 상점과 집들은 <틈새 호텔>의 일시적인 이웃이 되어 호텔에 머무는 숙박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호텔은 예술성과 기능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비엔날레에서 전형적으로 전시되는 일시적인 ‘기념물’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12. 미국을 위한 기념비(1/16 스케일), 2024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레진, LED 조명이 부착된

디스플레이스 케이스, 205.5×176×88 cm

13. 미국을 위한 기념비, 2024

애니메이션, 3분 41초

<미국을 위한 기념비>는 평판 트레일러에 거대한 거울이 부착된 18륜 트럭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도시, 시골, 인공, 자연 등 미국의 풍경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장소와 마주칩니다. 이에 따라 거울에 반사된 상 역시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한 장소에 정박되어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기념비의 통상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트럭은 공공 기념비의 역할을 질문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여행합니다. 거대한 광고판의 문법을 차용하는 거울은 지나가는 풍경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포착합니다. 일상적인 것부터 낯선 것까지, 거울에 반사되는 장소들은 동등한 위상을 갖습니다. 장소 특징적이면서도 사용자 특징적인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며 폭넓은 스펙트럼의 미국적 정체성을 만들어 냅니다.

14. 별똥별(1/23 스케일), 2024

혼합 재료, 157.1×103.3×65.5 cm

15. 별똥별, 2012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49분 13초

“어느 날 갑자기 불기 시작한 바람은 회오리 바람으로 바뀌었고 살고 있던 집이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하였다. 회오리 바람에 날려 가는 집안에서 그는 다른 회오리 바람에 날려 가는 또 다른 집(도로시의 집)과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를 만난다. 날아가는 도중에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보게 된다. 그것들이 지난 후 그는 집이 지상에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몇 가지 일을 하게 된다. 우선 집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무게가 나가는 필요 없는 물건들, 도구함, 옷가지와 금속 재킷만 남겨 둔 다음, 이번에는 안전한 착륙을 위한 낙하산을 만든다. 회오리 바람이 그치고, 집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만들어 둔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한다. 이때 그의 서울 집이 그가 미국에 처음 정착했던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아파트 건물, 미국 집에 박히게 된다.”¹

2000년대 후반, ‘한 문화의 건축물이 날아가 다른 문화의 건축물에 박힌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서도호의 <별똥별> 연작은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변모하였습니다.² 전시에서 선보이는 모형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실제로 구현된 설치 작품 <별똥별>(2012)을 1/23 스케일로 재현한 것입니다. 작품은 미국의 작은 오두막이 마치 신비한 힘에 의해 들어 올려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제이콥스홀 꼭대기에 ‘착륙’한 것처럼 놓여있습니다. 우거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외팔보 형태로 7층 건물 옥상에 비스듬히 놓인 오두막 형태를 띠니다. 미국 가정생활을 둘러싼 문화적 담론을 반영한 대중적인 인테리어로 인해 친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바닥과 집의 각도가 서로 달라 현기증이 나고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동화적인 제목의 작품 <별똥별>은 소속감을 찾는 우리의 모습과 문화적 이주에 관한 우리의 불안정한 경험을 탐구합니다.

16. 반전된 광장에 관한 연구—1, 2022

종이에 연필, 파스텔, 72.4×210.8×5 cm

17. 반전된 광장에 관한 연구—2, 2022

종이에 연필, 파스텔, 72.4×210.8×5 cm

18. 반전된 광장에 관한 연구—3, 2022

종이에 흑연, 91.4×152×5 cm

19. 반전된 기념비—광장, 2022

애니메이션, 사운드(스테레오), 2분 47초

<반전된 기념비-광장>은 서도호가 작업 초기부터 생각해 온 반-기념비에 관한 사고를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지배자의 권력을 연상시키는 기념비의 수직적인 위계를 전복시키고, 시민 광장 중심에 위치했던 기념비를 지하로 깊이 파고드는 관으로 용도를 뒤바꾸어 인물을 속이 텅 빈 형상으로 변형시킵니다. 광장 아래 깊숙한 곳까지 굴을 파듯 내려가 빈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공백과 삭제, 선택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류 역사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20. 공인들(1/6 스케일), 2024

제스모나이트, 나일론, 스테인리스스틸, 레진, 모터,
48×34.9×47.8 cm

21. 공인들, 2022

애니메이션, 1분 55초

서도호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1990년대부터 기념비에 내재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특성에 충격을 받고 새로운 기념비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도호의 대표작인 <공인들>(1998)은 기념비의 인물을 끌어내려 좌대 밑에 위치시키고 한 명의 영웅이 아닌, 크기를 줄인 익명의 다수를 배치합니다. 관람자의 시선을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동상대를 구성하는 무거운 돌을 함께 지탱하는, 혹은 그 무게에 저항하는 다수의 개인, 익명의 대중에 시선과 자리를 내어줍니다. 작가는 6분의 1 크기의 움직이는 버전을 새로 선보이며 고정적이고 장소 특정한 동상의 성질에 도전합니다.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며 기념비 좌대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적인 형태를 통해 작가가 본래 구상했던 <공인들>의 형상을 마침내 실현합니다.

22. 연결하는 집, 런던(1/125 스케일), 2024

판수지, 레진, 종이, 스테인리스스틸,
144.6×144×144 cm

23. 연결하는 집, 런던, 2024

애니메이션,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29분 13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동안 지나가게 되는 중간의 공간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웜우드 스트리트(Wormwood Street)의 육교에 한옥 모형을 심었습니다. 복잡한 런던의 고층빌딩 사이의 육교에 한국 전통 가옥이 떨어져 꽃힌 형태로 설치된 <연결하는 집, 런던>(2018)은 그가 이주하는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인 국가, 문화에 관한 기억과 감정, 나아가 런던의 기나긴 이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유년기에 살았던 집을 그가 이주하게 된 다른 도시로 옮기기를 시도함으로써 한 개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는지, 이러한 경험이 한 개인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결하는 집, 런던>을 축소된 모형으로 선보이며, 건축 모형이 갖는 세밀하고 정교한 특성을 통해 작업을 새롭게 맥락화합니다.

24. 향수병(1/80 스케일), 2024

혼합 재료, 122.5×83×8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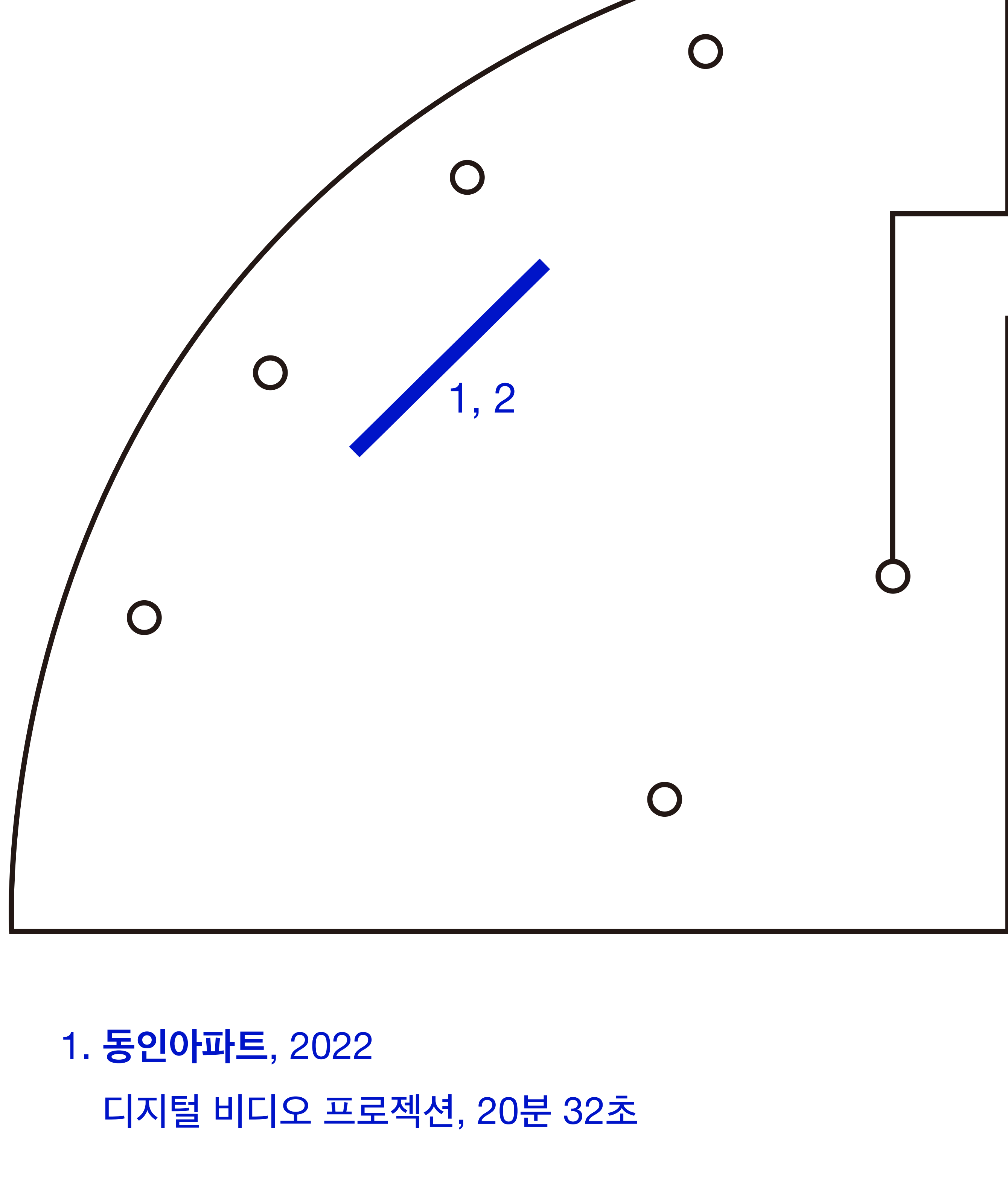
<향수병>은 폐허가 된 건물의 단면을 작은 3D 모형의 형태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물이 채워진 유리 케이스 안에는 각종 가정용품과 의류,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때 리드미컬하게 출렁이는 파도 움직임은 전시 공간에 운동성을 불러오며, 움직임, 이주, 이동과 같은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물들은 난파되어 해변으로 떠밀려온 것처럼 폐건물을 드나들게 되는데, 이는 강제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들의 고통과 생태적 재앙의 여파를 은유합니다.

1 서도호, 『집속의 집』, (리움미술관, 2012), 13.
2 전영백, 「서도호-여행하는 집, 사적 공간의 공적 전시」, 『코끼리의 방』, (두성북스, 2016), 192.

전시 지도 및 작품 설명

스페이스 2

3층



1. 동인아파트, 2022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20분 32초

<동인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동인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건물은 1969년 대구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1980년대 서울 재개발 당시 주로 지어진 고층 건물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작가는 수천 장의 사진에서 질감과 물성을 포착하여 물리적인 공간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사진측량(Photogrammetry) 기법을 사용하여 건물을 3D로 매핑한 후, 이 디지털 모델을 활용해 플라이 스루(Fly-through)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건물에 거주했던 수많은 삶의 흔적을 드러내며 건물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벽과 문을 투시하듯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시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을 드러내며,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견고하다고 믿는 경계들을 투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2. 로빈 후드 가든, 울모어 스트리트, 런던 E14 0HG, 2018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반복재생, 사운드, 28분 34초

<로빈 후드 가든, 울모어 스트리트, 런던 E14 0HG>는 철거 직전에 놓인 영국 런던의 주거 단지 로빈 후드 가든의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반응으로 제작된 파노라마 영화입니다. 작품은 장소특정적인 동시에 시간특정적입니다. 당시 거주자들이 개조하고, 장식하고, 배치한 모듈식 인테리어를 기록하는 동시에 곧 사라지게 될 물리적 구조물 안에서 집, 기억, 이주 등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습니다. 작가는 타임랩스 사진, 드론 영상, 3D 스캐닝과 사진측량 기법 등을 이용해 카메라를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며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각적 여정을 만듭니다. 안정적인 영상 속도와 일관된 정면 시점의 장면들 속에 각 입주민의 취향, 스타일, 문화, 환경의 차이를 드러내는 무수한 요소들이 담기며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작가 소개

서도호(b. 1962)

서도호는 2003년 아트선재센터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시드니 현대미술관(202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2019), 워싱턴 D.C. 스미소니언박물관(2018), 토와다 현대미술관(2018), 휘트니미술관(2017, 2001),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2016), 도쿄 모리 미술관(2015), 서울 국립현대미술관(2013)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리버풀비엔날레(2010), 베니스 건축비엔날레(2010), 이스탄불비엔날레(2003), 영국 서펜타인갤러리(2002), 베니스비엔날레 본관 및 한국관(2001) 등 주요 세계 미술관 그룹전에 참여했다. 작가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리움미술관, 모리미술관, 가나자와 21세기현대미술관을 포함한 전세계 유수의 공공 및 사립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7년 호암상을,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 매거진이 선정한 예술 부문 올해의 혁신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작가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문화의 이동과 차이 그리고 충돌을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기억으로 확장한다. 작가가 거주했던 서울의 한옥과 뉴욕의 아파트를 비단으로 만들어 설치한 작업은 이러한 경향을 드러낸다. 건축과 도시, 공간과 환경으로 확장되는 그의 작업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에서 점차 혼종적으로 확산되는 동시대적 삶에 관한 시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스크리닝

<연결하는 집, 런던>, 2024, 29분 13초

일시: 8월 17일, 9월 7일,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별뿔별>, 2012, 49분 13초

일시: 8월 24일, 9월 28일,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서도호의 움직이는 집들>, 2023, 52분 48초

일시: 8월 31일, 10월 5일,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강연

<서도호에 대한 미술사적 접근>

일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강연자: 우정아(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관람 안내

관람 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입장료

10,000 원(25세-64세) / 7,000원(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 5,000원(9세-18세) / 무료: 그 외 연령 및 장애인, ICOM CIMAM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한국어 도슨트 가이드 투어

일시: 전시 기간 내 화요일-일요일 오후 2시, 4시

소요시간: 40분

신청방법: 사전 신청(웹사이트 참고) 및 현장 접수

영어 도슨트 가이드 투어

일시: 9월 4일 수요일-9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소요시간: 40분

신청방법: 사전 신청(웹사이트 참고) 및 현장 접수

서도호: 스페큘레이션	아트선재센터
2024. 8. 17.-11. 3.	예술감독: 김선정
	부관장: 문지윤
주최: 아트선재센터	전시팀장: 조희현
협찬: 매일유업(주),	레지스트라: 천수원
벽산엔지니어링·파워·엔터프라이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남서원, 최서영
LG 올레드, 코오롱스포츠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이예인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지원팀장: 이미선
	에듀케이터: 김현미
기획: 김선정, 조희현	어시스턴트 에듀케이터: 고혜민
진행 보조: 유승아	시설관리부: 황우석, 문현성, 윤재일
전시장 조성: 황우석, 지성시공	인턴: 유승아, 정해린
미디어장비설치: 멀티텍,	
스마트인터랙티브, 문현성, 윤재일	© 2024 아트선재센터.
영상제작: 이미지베이커리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로지스틱스 및 작품상태조사: 천수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운송 및 설치: 로어아트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조명: 에르코	
그래픽 디자인: 반스튜디오	아트선재센터
배움프로그램 자문: 최윤아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배움프로그램: 김현미, 고혜민, 정해린	율곡로3길 87
홍보: 매그 피알 앤 이미지, 수튼	T. 02 733 8949
홍보영상: 이의록	F. 02 733 8377
설치사진: 남서원	W. www.artsonje.org
번역: 김진우	

감사한 분들

서도호 스튜디오
리만 머핀 뉴욕, 런던, 서울
빅토리아 미로 런던, 베니스
대인